

문화나누美

예술타리



문화나누美 여러분의 전화한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폰으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하늘 다리



2015 | 03/04 | vol. 47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ASAC SPECIAL

- 08 인터뷰 _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승표
- 12 초대석 _ 배우 박창근

ASAC STAGE

- 17 연극 _ 먼 데서 오는 여자
- 20 뮤지컬 _ 바람이 불어오는 곳
- 23 아침음악살롱 _ 2015 아침음악살롱

ASAC CULTURE TREND

- 26 테마가 있는 미술 _ 에밀리 메리 오스본
- 32 테마가 있는 공연 _ 무대와 스크린
- 36 테마가 있는 음악 _ 오페라와 영화
- 42 칼럼 _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SAC 문화사업

- 48 오늘도 왓지컬 우리동네!

ASAC 쉬어가는 곳

- 54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이
- 58 告解聖事[고해성사] 그리고 自畫像[자화상]

ASAC NEWS

- 64 안산국제거리극축제 _ 5월, 거리예술로 함께 만드는 도시의 흐름
- 68 단원미술관 기획전 _ 신성희, 고향에 오다

2015. 03 (MARCH)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관 뽀로도콘서트 11:00, 14:00, 16:00 / 달맞이극장	2	3 대관 한호전입학식 14:00 / 해돋이극장	4	5 대관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17:30 / 별무리극장	6 대관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17:30 / 별무리극장	7 대관 제4회 노래하는피아노 정기연주회 18:00 / 별무리극장
8 대관 3월의어느멋진날에 19:00 / 별무리극장	9	10	11	12 대관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19:30 / 별무리극장	13 대관 시립국악단 기획연주회 19:30 / 별무리극장	14 대관 풍선코끼리 발루뽀 11:00, 14:00, 16:00 / 달맞이극장
15 대관 풍선코끼리 발루뽀 13:00, 15:00 / 달맞이극장	16 	17	18 	19 기획 먼 데서 오는 여자 20:00 / 별무리극장	20 기획 먼 데서 오는 여자 15:00, 20:00 / 별무리극장	21 기획 먼 데서 오는 여자 15:00, 19:00 / 별무리극장 대관 가족뮤지컬 라퐁젤 11:00, 14:00, 16:00 / 달맞이극장 대관 조성모전국투어콘서트 18:00 / 해돋이극장
22 기획 먼 데서 오는 여자 14:00 / 별무리극장	23	24	25 대관 극단이유-창작극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인형극 도깨비방망이와 도토리 10:30, 13:00 / 달맞이극장	26 대관 극단이유-창작극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인형극 도깨비방망이와 도토리 10:30, 13:00 / 달맞이극장	27 대관 극단이유-창작극 19:30 / 별무리극장 대관 인형극 도깨비방망이와 도토리 10:30, 13:00 / 달맞이극장	28 대관 극단이유-창작극 15:00, 18:00 / 별무리극장 대관 안산제일복지재단 제2회 레인보우콘서트 15:00 / 해돋이극장
29 대관 극단이유-창작극 17:00 / 별무리극장	30	31				

2015. 04 (APRIL)

공연은 기획/대관으로 구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대관 이삭피아노 정기연주회 17:00 / 별무리극장	4 대관 힐링센터0416심과함 발표회 19:30 / 달맞이극장
5 대관 코리아페스티벌심포니 감사음악회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가야금병창-볼의향연 16:00 / 별무리극장	6	7	8	9 대관 경기도전국연극제 19:00 / 별무리극장	10 대관 겨울왕국 19:30 / 달맞이극장	11 대관 겨울왕국 11:00, 14:00, 16:00 / 달맞이극장
12 대관 겨울왕국 11:00, 14:00, 16:00 / 달맞이극장	13	14	15 대관 안산성악예술재단 창단음악회 19:00 / 별무리극장	16 기획 4·16 음악회 해돋이극장	17	18
19	20	21	22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 13:30 / 해돋이극장	23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 13:30 / 해돋이극장	24 기획 바람이불어오는곳 19:30 / 달맞이극장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 13:30 / 해돋이극장	25 기획 바람이불어오는곳 15:00, 19:00 / 달맞이극장 대관 뮤지컬 우리들의일그러진영웅 10:30, 13:30 / 해돋이극장
26 기획 바람이불어오는곳 15:00 / 달맞이극장	27	28	29 기획 아침음악살롱 11:00 / 해돋이극장	30 대관 시립합창단 세월호1주기 추모음악회 19:30 / 해돋이극장 대관 호랑님 생일날 11:00, 13:30 / 달맞이극장		

출발.. initium

그 출발의 시작...
w.initium wedding convention



w.이니티움 웨딩컨벤션

안산문화예술의전당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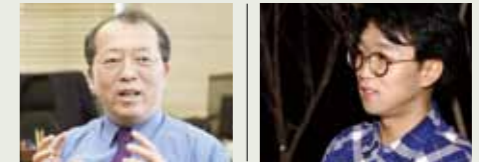
031.402.7810 / 483.5206

www.initiumwedding.com



SPECIAL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08 인터뷰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승표

12 초대석
배우 박창근



“문화관광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 모두가 향유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홍 승 표

Q 지난달,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며 아울러 사장님께서 그리고 계신 경기도 관광산업의 커다란 청사진이 궁금합니다.

A 경기도가 워낙 넓고 또 수많은 관광지가 흩어져 있어 이들을 어떻게 연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기북부의 자연과 DMZ,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남한산성, 그리고 경기남부의 도심, 도자기 등 다양한 테마를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리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이 같은 고민의 해결을 위해선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데, 공사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제시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경기북부관광의 경우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이자 자연 생태계의 보고(寶庫)인

DMZ 등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그에 걸맞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가 해결된다면 자연스레 파주·연천·김포의 DMZ, 양평·가평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40여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러한 경력이 경기관광공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A 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저희 직원들이 마음 편히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관광공사 직원들 스스로가 올바른 목표를 세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물론 각 시군들과의 순조로운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Q 예전과 다르게 관광산업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A 우리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관광, 한류관광, 쇼핑관광 등이 사실 알고 보면 전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우리의 일상인데,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소하지만 개성있고, 경쟁력 있는 숨겨진 것들을 발굴하여 좋은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사가 앞장서 주변의 일상에서 관광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항상 깨어 있는 창의적 시각으로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마이스(MICE)산업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단체 회의를 관광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마이스산업을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와 헤이리 프리미엄 아울렛, 그리고 DMZ도 그 일환의 하나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열린 사고(思考)를 통한 기존의 자원들을 잘 발굴하고 엮어나가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Q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관광산업의 키워드와 강점은 무엇인지요?

A 바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LG 등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베이스를 삼고 있고 수원화성, 남한산성, 조선왕릉과 같은 세계문화유산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당과 일산 등에 위치한 카페거리와 같은 도시적 아름다움은 물론 수려한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로써 첨단과 역사,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독보적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바로 경기도 관광의 특징이자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비롯한 인천 등과 같은 대도시와 근접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약 2,500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서울, 인천의 인구가 관광산업의 잠재적 요소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배후인구를 지닌 관광지는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용에 대한 기대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정부가 중국 등 해외 여행인구의 교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 방영되어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도 화제의 드라마로 성공을 이끌어내면서 촬영지였던 가평 뷔띠프랑스가 15만 명의 중국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과 비교해 50배라는 놀라운 증가율로서, 중국인들의 특성과 트렌드를 적극 반영한 홍보마케팅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관광객 유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직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 국가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홍보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가적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인의 경우 쇼핑, 한류, 미용을 선호하므로 여주 및 파주의 아울렛과 스킨애니버서리 등을, 동남아권 국가들의 경우엔 에버랜드, MBC 드라마와 같은 한류 연계형 상품을, 일본인들의 경우는 수원화성과 민속촌 등과 같은 역사자원의 활용이 그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 개별관광객의 급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국내에 방한한 중국관광객 중 개별관광객 비율이 53.8%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기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이 대부분으로 그들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 및 시행에 옮길 것입니다.


Q 우리 안산만의 관광상품 개발계획 또는 안산문화재단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안산도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을 활용한 갯벌체험, 낙조 등이 충분히 매력적이고, 대부도의 경우 포도, 와인, 유리섬 등이 관광지로서의 매우 높은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안산만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안산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개발 지원, 안산 맞춤형 홍보마케팅, 홍보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서로가 고민하고 안산문화재단과도 이러한 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통합 관광의 핵심은 협력입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울, 인천과도 접해 있어 어느 곳보다도 주변과의 협력이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보다 치밀한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로서 제각각인 각 시·군별 관광산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및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사의 몫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하여 그 실천의 폭을 넓혀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안산문화재단에 대한 바람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문화관광은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 모두가 향유할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안산문화재단이 안산의 문화가 꽃피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두 기관이 함께 안산을 넘어 경기도 전체를 위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희망합니다. 



봄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비처럼 그렇게 가만히 찾아온 따뜻한 사람 박 / 창 / 근

익숙지만 새롭고 존재치만 부재한 바람 같은 사람故 김광석을 여전히 바라며 그를 노래하는 싱어송 라이터 박창근. 그는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를 풀어 내고 창작에 대한 깊은 탐구적 고뇌로 잠든 김광석을 다시 깨워 일으키고 있다.



김광석을 깨우다

1996년 1월 6일 새벽 4시, 매서운 한파,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숨소리. 故 김광석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고 19년이라는 세월은 무심히 흘러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삶을 회자하고, 그는 못다한 노래를 멈추지 않은 채 더욱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온기를 각인시킨다. 자신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번에 만나게 될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주인공 박창근. 그는 김광석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다. 아니 다시 깨워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일까, 들은 꽤나 닳아 있다.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실력파라는 것, 그리고 음색, 사상, 노래에 대한 열정과 고뇌 등.

‘어쿠스틱 뮤지컬’이라 명명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다소 생소한 장르지만 김광석을 모티브로 하며, 극 중 이풍세(박창근 분)라는 인물을 통해 김광석을 다시 한 번 마주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객들을 포용한다.

그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단독 주연을 맡고 있는 박창근을 만나기 위해 그의 공연이 오르고 있는 서울 동숭동의 SH아트홀을 찾았다. 약속시간보다 앞서 도착한 덕분에 잠시 공연장을 미리 탐닉할 수 있



는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그가 온다. 잠시 김광석 생전의 모습이 교차되는 듯하다, 이내 다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환기된다.

인터뷰는 그가 노래하고 연기하는 무대에서 진행됐다. 그래서일까, 그는 무대에서 꽤나 근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대를 둘러봤는데 특별한 장치나 꾸밈이 많지가 않습니다.”라는 질문에 “음, 김광석 선배님을 모티브로 준비된 공연이기에 고스란히 선배님을 추억할 수 있도록 애쓴 흔적들입니다.”라고 답한다. 실제로 그의 공연을 관람했던 이들은 이 공연에 대해 “놀랍도록 김광석의 음색을 재현해낸 그의 노래와 또 함께하는 배우들의 열정적 연주, 그리고 연기가 더해져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 준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김광석이 그랬듯 그

의 음악을 대하는 태도마저 김광석을 닮아버린 이유일 수도 있겠다.

사실 그는 커다란 무대도 좋지만 소극장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놓을 수 없다. 생전에 가객(歌客)이라 불리던 김광석도 그랬다. 작은 무대지만 관객들과 이야기하듯 그렇게 노래하고 자신의 열정을 표출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다. 왜 노래를 하는지 말이다. 이에 그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바로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창작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고통을 아는 이들라면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명쾌한 대답을 들려준다.

재주 많은 사람

박창근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재주가 많다. Begin Ag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연된 이 뮤지컬의 단독 주연은 물론 음악감독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인지 소극장 문화에 대한 그의 철학은 확고하다. 이에 대해 그가 먼저 소극장 문화에 대해 입을 열었다. “경제적 논리로 쇠퇴해 가는 소극장 문화에 대해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동승동의 아티스트들이 흥대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등지를 틀고 있으나 그 본질이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들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라며 “또 흔히 언더라고 칭해지는 우리들 스스로가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저는 똑똑하지 못하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라며 너털웃음을 지어 보인다.

사실 그는 찢어질 듯한 창작의 고통으로 태어난 호소력 짙은 음악을 통해 관객들과 작은 무대에서 소통하길 즐겨한다. 그와 대화를 하다 보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공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반문을 던져보게 된다.

이어 그에게 “왜 김광석이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에 그는 “선배님이 공연장에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듯 노래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연이 대중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게 됐지요. 따라서 자기만의 음악과 공연으로 소극장 공연 문화를 싹틔운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닦고 싶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선 분명 저의 롤 모델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의 음악적 취향은 싱어송 라이터이자 사회운동가인 닐영(Neil Young)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여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며, 그동안 발매됐던 그의 솔로 앨범들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들어있다.

대중에게 그가 전하고픈 메시지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의 뮤지컬 배우로서 꾸준히 자신을 알려온 박창근은 배우이기에 앞서 음악성을 인정받는 싱어송 라이터라는 타이틀이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울러 대학시절부터 노래패로 활동하며 기존의 인간중심철학에서 환경과 인간의 존재가 결코 둘이 아니며, 육식에 기초한 생명에 대한 경시 등과 같은 이원론(二元論)적 세계관이 사회모순으로 이어진다는 범우주적 세계관으로의 철학적 전환을 노래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의 환경문제를 바라보던 사회운동가들과 조금은 다른 시각이다.

이러한 그는 록 밴드 '가객'과 프로젝트 밴드 '이유'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 1999년 솔로 1집 앨범을 시작으로 모두 다섯 장의 앨범을 발매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지난 2005년 발매한 2집 앨범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에 담긴 작품들을 통해 한국대중음악상 '평론가들이 주목한 올해의 음반'에 선정되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 라



이터다. 하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하는 '김광석'이라는 꼬리표에 대해 부담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에 “관객들이 나의 노래를 듣고 김광석을 추억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를 인정해 준 게 아닐까 생각한다. 또 나의 음악은 음악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노래에선 김광석만의 스타일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나만의 색을 가진 음악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마음 또한 편하다.”라고 답한다.

and epilogue

그는 노래하며 관객들과 호흡할 때를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감히 말한다. 그런 그가 이제 안산시민들을 찾아온다. 이에 그는 “벌써부터 설레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며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사실 요즘 방송매체와 대형 매니지먼트사가 만들어낸 공연문화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다소 획일적인 모습에 다름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현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정형화된 문화를 감히 거부하고, 또 스스로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보다 많은 박창근, 그리고 그를 뛰어넘는 또 다른 김광석이 나타나 주길 고대해 본다. 





STAGE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먼 데서 오는 여자

안산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를 기획, 작품성을 검증받은 우수한 연극을 선별하여 매년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배삼식 작가와 김동현 연출이 2014년에 선보였던 창작신작 연극<먼 데서 오는 여자>를 우수소극장시리즈 10번째로 선정하여 3월 19일부터 4일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공연예정이다.

제8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연극부문 (작가 배삼식)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배우 이연규)

<먼 데서 오는 여자>는 배삼식 작가에게 제8회 차범석 희곡상(연극 부문)을 안겨주고 아내 역을 맡은 이연규 배우가 제51회 동아연극상 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밀도 있는 구성과 연출, 배우들의 열연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춰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극찬을 받은 우수연극으로 초연 당시 연일 매진행렬을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관록의 연기와 배우 이대연과 이연규 배우의 노부부 연기는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전해 줄 것이다.

슬프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절제된 감정연기로 자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대연 배우(남편 役)와 기억과 망각을 헤매며 폭 넓은 감정 변화를 겪는 이연규 배우(아내 役)의 연기가 어우러져 오랜 시간 쌓아 온 두 배우의 연륜과 연기의 힘이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난 진정성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17 연극
'먼 데서 오는 여자'

20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23 아침음악살롱
2015 아침음악살롱



연극 <먼 데서 오는 여자>

날짜.
2015. 3. 19 (목)~3. 22 (일)
4일 6회 공연 (100분 소요)
목요일 8PM 금요일 3, 8PM
토요일 3, 7PM 일요일 2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관람료.
25,000원 (13세 이상 관람가)

출연.
이대연, 이연규

작_배삼식 연출_김동현
제작_극단 코끼리만보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관람 031-481-4022



I 시놉시스

공원 벤치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여자는 누군가를 기다리며, 계속 생각에 잠겨있다. 그러다 옆 남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소소하게 꺼낸다. 남자는 오래 전 중동으로 일하러 떠났던 여자의 남편이다. 이들은 서로의 과거와 그 기억을 오가며 삶에서 기억하려고 애썼던 일들, 또 잊으려고 애썼던 일들을 대화로 이어가기 시작하는데...

I PRESS 리뷰

그녀가 잊고자 했지만 지울 수 없는 기억들로 관객을 초대하는 극 여정은 역사의 농축이자, 동시대 삶의 반추다. - 조선일보

가슴 저릿한 감동의 연극입니다. 이대연과 이연규 배우의 호흡도 훌륭합니다. 열정과 절제의 연기를 펼쳐낸 이연규 배우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 경향신문

한마디로 잘 다듬어진 웰메이드 공연, 극본과 연출 모두 흠잡을 데 없다. 개인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를 포개 공감력을 키웠다. 밀도 있는 구성은 집중력을 높인다. - 이 데일리

I 관객리뷰

관록 있는 두 배우가 만들어 내는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관객들은 순간 먹먹해진다. 비록 두명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나지막하지만 힘찬 연기의 양상불이 무대를 꽉 채운다. (ik**님)

어쩌면 이런 글을 풀어내셨는지... 존경합니다.. 배삼식 작가님 팬이 되었어요. 배우분들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응집되어 잠복해 있다가 폭발하는 작품의 힘에 한껏 짓이겨져 나왔습니다. (dkfjq**님)

치매 걸린 아내와 그 남편 노부부의 이야기라고만 알고 들어갔는데 생각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연극이어서 공연이 끝나고 나와서까지 먹먹함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har****님)



사진제공 : 극단 코끼리만보

제작진 소개



작가. 배삼식
주요작품
〈허삼관매혈기〉, 〈벽속의 요정〉,
〈열하일기만보〉, 〈거트루드〉,
〈하얀앵두〉, 〈별〉, 〈3월의 눈〉 외



연출. 김동현
주요작품
〈말들의 무덤〉, 〈그을린 사랑〉,
〈영원한 평화〉, 〈다윈의 거북이〉,
〈하얀앵두〉, 〈착한사람, 조양규〉 외



**ASAC 우리 뮤지컬의 힘! 8번째 공연
김광석이 부른 명곡을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김광석이 부른 명곡을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로 주크박스 뮤지컬의 모범사례라 할 만큼 호평을 받았다. 김광석 노래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거의 편곡을 하지 않고 원곡 그대로 살렸으며 배우들이 직접 뮤지션이 되어 보컬에서 연주까지 라이브로 20여곡을 소화해냈다. 기존 뮤지컬처럼 화려한 무대기술과 볼거리보다는 소극장 콘서트를 그대로 구현한 담백한 무대가 특징으로 배우들이 직접 연주하고 실력도 이미 수준급으로 정평이 나있다. ASAC 우리 뮤지

컬의 힘! 8번째 시리즈로 따뜻함이 필요한 안산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2015년 봄, 김광석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만나자.

**그가 떠난 지 19년, 소박하고 진솔한 음색, 치유의 노래가 되어 다시 김광석 바람이 분다!
더 단단해지고 짜임새 있는 드라마 구성, 뮤지컬과 콘서트를 동시에 즐긴다.**

꽤 잘나가던 인기가수가 수천 명의 관객이 모인 대극장이 아니라 무릎을 맞대며 봐야 하는 작은 소극장에서 매일 매일 라이브공연을 한다는 건, 생경스럽지만 참 고마운 일이다.

그 고마움이 세월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에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어 그쪽 소극장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을 그를 잊지 않은 채 가슴으로 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민주화의 열망이 한창이던 80년대 대학연합 노래패에서 활동하다가 90년대 이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또 하나의 빛나는 히어로가 된 김광석. 그가 떠난 지 19년이 됐지만 시대를 넘고 세대를 초월한 그의 팬들이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의 노래를 부른다.

그의 말대로 그가 부른 노래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겪고 느끼는 이야기들을 표현한 노래'다. 사람들은 김광석의 노래 속에서 자신들의 지난하고 소박한 삶과 때론 세상과의 한판 승부에서 무너져 내린 자신과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극복하려는 의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노래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도약거리는 치유의 노래가 됐다.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이 지점의 진정성을 가지고 출발한 공연이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지난 3년여 동안 김광석의 혼이 담긴 노래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공연은 박장렬 연출의 지휘아래 극구성이 보다 안정되고 템포도 빠르게 진행돼 기존에 다소 미흡했던 드라마의 흐름이 보완됐으며, 주연배우와 음악감독을 함께 맡은 박창근의 섬세한 음악지도로 콘서트 장면도 훨씬 풍부해졌다.



김광석이 부른 주옥같은 노래와 함께 주연배우 박창근이 직접 작곡한 '어느 목석의 사랑' '엄마' '바람의 기억' 등 총 20곡이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을 가득 채울 것이다.

**모창이 아닌 김광석의 노래와
흔을 정통으로 잇는 박창근의
힘**

노래 잘하고 연기까지 잘하는 뮤지컬배우가 많은 상황에서 연기 한번 해보지 않은 대구 출신 싱어송 라이터 박창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을 때 사람들은 걱정했다.

치아 교정에 사투리까지 구사하는 그가 단지 노래 잘한다는 거 하나로 뮤지컬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공연이 이어져 갈수록 사람들의 우려는 안도로, 다시 환호로 이어졌고 그를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형성됐다. 어설피지만 진심이 우리나라는 무대에서의 그의 진중한 모습 그리고 김광석만큼이나 호소력 있는 그의 노래는 단박에 관객을 사로잡았다. 그는 백여 회가 훨씬 넘는 공연에서도 하루하루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대학시절 노래의 힘을 알게 해준 선배로서 존경하는 김광석과 노래에 담긴 그의 정신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이다. 김광석의 노래 정신과 그 계보를 잇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하고 반가운 뮤지션이다. 그는 마치 김광석이 살아온 듯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해준다. 그의 힘에 이끌려 우리는 다시 김광석을 추억하며 소박한 음색에서 묻어난 진솔함을 오랜만에 만나게 될 것이다.

2015 아침음악살롱

젊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장르의 폭이 넓어진 <2015 ASAC아침음악살롱>

2014년 관객과 연주자가 간격을 두고 들려주고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실에 함께 모여 앉아 음악의 진동과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하우스콘서트 방식을 도입해 2015년 아침음악살롱은 본격적으로 해돋이극장 무대 위와 별무리극장에서 진행된다. 매 짝수 달의 마지막 주에 찾아오는 아침음악살롱은 4월과 10월 문화가 있는 날인 마지막 주 수요일에, 6월과 8월은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설이 있는 즐거운 클래식과 영화OST 등으로 꾸며져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들로 구성될 이번 아침음악살롱은 해설이 곁들여져서 더 알차고 풍성해졌다. 연주자와 평론가 등이 각 곡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4월과 10월에는 수준 높은 클래식공연으로 6월과 8월에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영화음악으로 폭넓고 다양한 장르로 꾸며진다.

4월 : 탁월한 재능,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지닌 음악가의 무대

2015 ASAC아침음악살롱의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은 클래식계의 라이징스타 비올리스트 이신규와 피아니스트 이현진이다. 세계적인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이자 줄리어드 음대교수인 Lewis Kaplan은 비올리스트 이신규를 이렇게 평했다. “그는 탁월한 재능, 짙고 따뜻한 소리, 그리고 풍부한 음악적 상상력을 지닌 음악가이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진지하고 헌신적으로 음악을 받아들이는 뮤지션이다.”



비올리스트 이신규



피아니스트 이현진

2015아침음악살롱

일정
2015. 4. 29 (수) 11:00
2015. 6. 25 (목) 11:00
2015. 8. 27 (목) 11:00
2015. 10. 28 (수) 11:00

장소
해돋이극장 & 별무리극장
(공연 후 다과 제공)

4월/10월 '문화가 있는 날'로
해돋이극장 무대 진행

관람료
전석 18,000원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날짜
2015. 4. 24 (금)~4. 26 (일)
3일 4회 공연 (140분 소요)
금요일 7:30PM 토요일 3,7PM 일요일 3PM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R석 45,000원 S석 35,000원(8세 이상 관람가)

출연
박창근, 디안, 정수훈, 박두성, 황지영,
최윤희, 문보람, 이현도, 이가을

제작
LP스토리

주최
(재)안산문화재단

티켓오픈
2월 25일(수) 오전11시

예매처
콜센터 080-481-4000
인터파크 1544-1555
단체관람 031-481-4022

<할인정보>
조기예매 20%할인 (3/24까지 예매 시)등급

정상가	조기예매	할인 시
R석	45,000원	36,000원
S석	35,000원	28,000원

재단회원 10%, 10인 이상 단체 30%, 연극가족 30%(본인),
문화릴레이 30%, 65세 이상 경로 50%(동반1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50%(동반1인), 행복플러스카드 50%

I PRESS 리뷰

“김광석의 포크송 23곡이 자아내는 여운에 객석의 마음은 막 내린 후에도 극장을 배회한다.”

- 한국일보

“비와 창문, 그리움을 담아낸 빛은 물감으로 그린 한편의 수채화”

- 뉴스컬처

“기존 노래들에 대한 충실한 재생과 곡에 맞춘 스토리로 콘서트 뮤지컬의 전형을 보여준다”

- 문화일보

“흥행비결은 뮤지컬의 기본기인 노래가 출중하다는 점, 그리고 김광석 노래가 담고 있는 가치를 진솔하게 읽어낸 점”

- 뉴스토마토



이신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대학인 줄리어드 예비학교, 줄리어드 음악대학 학사 및 석사를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하였다.

Colorado Spring Music Festival Orchestra 수석, Atlantic Music Festival Orchestra 수석 등을 지냈으며 Karkov Orchestra와 CCMF Orchestra 협연으로 메인 주 생방송 라디오 MPBN 출연, 오케스트라 뿐만 아니라 솔리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등 실력이 검증된 연주자이다. AMF Hall에서 독주 및 챔버 연주를 포함하여 WMP Hall에서 초청 연주, 비올리스트로서 미 중부 순회 연주, 뉴욕 카네기 Issac Stern Hall에서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Avery Fisher, Paul, Morse, Alice Tully 등 링컨센터에서 독주 및 연주로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CCMF Concerto Competition 전체 악기부문 우승, Five Town Young Artist Competition 현악 부문 2위 등 각종 콩쿠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그는 충남 교향악단 객원 수석, 디토 오케스트라 객원 수석, Chelsey Symphony 객원 수석, 조이오 브스트링스 멤버, 스톱프뮤직 아티스트, 클래식 앙상블 부대표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함께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이현진 역시 음악계의 엘리트로 메네스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유수의 뮤직 페스티벌 및 마스터 클래스를 참여한 재원이다. 특히 얼마 전 방영된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 설내일(심은경) 역 대역 및 출연으로 또한 한 번 실력을 입증한 그녀는 클래식 앙상블 단원이자 편곡을 담당하고 있다.

에디트 피아프, 클라크, 헨델, 피아졸라, 크라이슬러 등을 선보일 이번 무대는 연주자들의 전용 공간처럼 느껴지던 무대에서 연주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보고 듣고 악기의 떨림을 온몸으로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마룻바닥음악회 형식으로 특별히 해돋이극장 무대 위에서 진행된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사라지고 연주자와 가까운 거리에 앉아 음악을 감상하게 될 이번 공연에서는 아직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관객과 연주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 모든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ULTURE TREND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26 테마가 있는 미술
에밀리 메리 오스본

32 테마가 있는 공연
무대와 스크린

36 테마가 있는 음악
오페라와 영화

42 칼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이해와 음악심리치료 방법소개



어느 무명 여성 화가의 고백

에밀리 메리 오스본의 〈명성도 아는 곳도 없는〉

빅토리아 시대 대표적인 여성 화가인 에밀리 메리 오스본(Emily Mary Osborn)은 여성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오스본의 그림에서 여성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당대 사회가 여성들에게 부여한 현실적 제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mily Mary Osborn

Nameless and Friendless. "The rich man's wealth is his strong city, etc."

제 그림을 사주시겠어요?

비가 쏟아지는 늦은 오후, 한 여인과 소년이 상점으로 들어선다. 온통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아하니 이곳은 화랑이다. 테이블 너머 화상에게 그림을 건넨 여인은 몹시 불안한 듯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손에 쥐어 끈만 만지작거린다. 여인의 옆에는 화구를 들고 선 소년이 보인다. 소년은 아마도 여인의 아들일 것이다. 그림을 건네받은 화상은 자못 거만한 표정으로 그림을 감정한다. 그림은 여인이 그린 것이다. 여인은 거래를 위해 그림을 꺼내 든 이 상황이 몹시 어색하다. 그림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은 오로지 어린 아들과 자신의 궁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화상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과연 그는 여인과 소년의 근심어린 표정을 지워 줄 것인가.

그림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여성화가인 에밀리 메리 오스본이 1857년에 그린 〈명성도 아는 곳도 없는〉(그림 1)이다. 화가로서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한

주인공은 그림 한 점 팔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생계를 위해 급히 그림을 처분하려 하지만, 부탁할 만한 이가 누구하나 떠오르지 않는다. 급한 대로 아들과 함께 화상을 찾아 나섰지만, 그저 부끄럽고 자신 없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라고? 여인은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에서 소외된 돈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평범한 이들의 자화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인공은 여성이다. 현실적으로 그녀는 혼자 화상을 만나러 나설 수도 없다. 함께 한 아들은 그녀가 보살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나선 그녀의 보호자이다.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여성이 홀로 공적 장소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녀에게 허용된 공간은 여전히 가정이었다. 특히 그림이 그려진 빅토리아 시대는 엄격한 도덕주의를 선호했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역할에서나 미덕을 찾을 수 있었다.

① 에밀리 메리 오스본, 〈명성도 아는 곳도 없는〉, 1857년,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 소장

집을 나선 여인을 향한 따가운 시선

여인을 향한 타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여인의 등 뒤에 앉은 두 명의 남성은 음흉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손에는 발레리나가 그려진 드로잉 작품이 들려있다. 작품 속 발레리나 소녀는 남성들의 탐닉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미적 탐닉이든, 성적 탐닉이든, 그늘진 모자 아래로 몰래 훑쳐보듯 주인공 여성을 바라보며 이들은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그림을 팔러 나온 여인의 처지를 동정했을까. 아니면 경제적 원조를 빌미로 그녀를 유혹할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19세기 여성의 사회 진출은 너무나 쉽게 성적 타락과 연결되었다.

오스본의 그림과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Dante Gabriel Rossetti)의 <발견>(그림 2)이라는 작품은 가정을 벗어난 여성의 타락과 이를 구원하는 남성 영웅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여성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다는 것을 성적 타락과 더 나아가 죽음과 연결시키는 사고가 팽배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준다. 19세기 여성들에게 허용된 직업은 가정교사나 유모, 또는 가정부였다. 이러한 직업군에 포함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오락 산업에 종사하거나 매춘부로 생계를 이어갔다.

여성 이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를 벗어난다는 것은 성적 위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물론 이러한 사고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당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오스본의 그림 속 남성들의 음흉한 시선은 어떤 이유에서든 가정을 떠나 사회로 나선 여성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당대 사회의 편견을 보여준다.

이름 없는 여성 화가로 산다는 것

자,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해보자. 그래서 여인은 그림을 팔았을까? 안타깝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19세기 여성 화가들에게 허용된 활동 범위는 매우 제약적이었다. 베르트 모리조와 메리 카사트 등 명성을 얻은 여성 화가들이 여럿 등장했지만,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가족과 동료 화가 등 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화가들은 주로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전시에 참여했으며, 컬렉터를 소개받았고, 그림을 팔았다. 그림 속 여성은 무명의 화가일 뿐 아니라 그녀를 도와줄 지인조차 없다.

여성 화가가 본격적인 직업군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경의 일이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그녀들은 주로 유명한 남성 화가들의 동료로 소개되었다.

모리조는 마네의 가족으로, 카사트는 드가의 동료로 주로 언급되었다. (그림 3, 4) 미술계에서 여성 화가는 매우 독립적이고 별난 존재로 여겨졌다. 그녀들에게는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일찍이 남성들에게는 제약이 없었던 누드 드로잉 수업이 여성 미술학도들에게 허락된 것은 1870년대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그림 속 여성이 화가로서 명성을 얻을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녀와 아들의 웅색한 차림으로 보아 그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 그림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 듯 보인다. 그녀는 감히 화가로서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 ②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발견>, 1850년대, 델라웨어 미술관 소장
- ③ 에두아르 마네, <베르트 모리조>, 1872년, 오르세 미술관 소장
- ④ 에드가 드가, <메리 카사트>, 1880-84년경, 워싱턴 국립초상화미술관 소장






5

그것이 고통이라도 삶은 지속되고

그림은 여성 화가에 관한 이야기지만, 작가인 오스본의 경험담은 아니다. 화가로서 오스본의 삶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열일곱 살에 처음으로 로얄 아카데미에 작품을 걸었고, 스무 살 이후로는 그녀의 컬렉터 명단에 빅토리아 여왕이 포함되었으니 말이다. 더구나 그녀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으니 그림 속 여인처럼 아들이 있었을 리도 없다.

그럼에도 오스본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린 것은 당대 여성들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돈 없고 의지할 이 없는 여성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생계를 위해 사회로 나선 여성들이 어떤 시선과 마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오스본의 또 다른 대표 작품인 <가정교사>(그림 5)에는 불만스러운 표정의 아이들과 어머니를 마주하고 선 검은 드레스 차림의 가정교사가 등장한다. 가정교사는 당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직업이었음에도, 그림 속의 여성은 갑의 위치에 선 고용주의 서늘한 눈치를 살피야 하는 울일 뿐이다.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의 여교사는 화려한 차림의 주인 가족과 대비된다. 19세기 처음으로 직업을 가지고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여인들에게 세상은 가혹한 곳이었다. 그들이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에 나섰을 리도 만무하다. 대부분 경제적 이유에서 집 밖으로 나섰을 것이다.

오스본의 그림 속 여인은 검은 드레스 차림과 남편이 아닌 아들을 대동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미망인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가장이 된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이쯤 되니 거만한 표정의 화상에게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그만 거드름을 피우고 그녀의 그림을 사주는 것이 어떨겠냐고. 이름 없는 사회 초년병이어도, 나를 받쳐줄 든든한 배경이 없어도, 누군가는 나의 재능과 능력을 알아봐 줄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비루한 삶이라도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으리라는 용기. 그림 속 여인이 그 희망과 용기를 놓지 않기를 바란다.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와 한양대, 계원예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5 에밀리 메리 오스본, <가정교사>, 1860년, 예일 영국미술센터 소장

무대와 스크린 ①

연극 <웃음의 대학>과 영화 <웃음의 대학>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웃음의 위력



움베르토 에코의 유명한 소설 <장미의 이름>에 보면 ‘금지된 책’을 읽은 수도사들이 차례로 살해당한다. 여러 명의 수도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가 공할 책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중 사라진 부분이라 전해지는 「희극론」, 즉 웃음과 희극에 대한 책이었다. 극중 주인공은 날카로운 추리와 탐문을 통해 범인을 찾아내고 마침내 ‘금지된 책’을 들고 있는 노 수도사와 마주하게 된다. 왜 그렇게 희극과 웃음을 막으려 했는지 묻자 노 수도사는 이렇게 대답한다. “웃음은 두려움을 없애니까.” 마녀사냥과 종교재판 등 무시무시한 공포를 통해 사람들을 순종시키려했던 중세에,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웃음’은 그 어떤 사상이나 무기보다 더 위험한 대상이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희극작가인 미타니 코키가 쓴 <웃음의 대학>은 이렇듯 강력한 웃음의 힘을 압축적이고 유쾌한 상황을 통해 풀어내는 2인극이다. 작가 미타니 코키가 직접 연출한 무대가 1996년 일본에서 초연되었고, 2004년에는 호시 마모루 감독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코미디 전문 작가 미타니 코키의 이름은 이미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 <매직 아워> <멋진 악몽> 등의 영화를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예측불허의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유머와 위트가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한편, 인간적이고 정감 넘치는 등장인물들이 언제나 따스한 여운을 남겨주곤 한다.

웃음을 둘러싼 일주일간의
줄다리기

평생 연극 한 편 본 적이 없는 냉철한 검열관과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 작가. <웃음의 대학>은 이 두 사람이 대본검열을 놓고 벌이는 7일간의 해프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매우 단순한 플롯이지만 미타니 코키는 이 과정 속에 웃음의 본질과 위력, 그리고 압력에 대항하는 작가의 선택 등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공연 허가를 두고 벌어지는 검열

관과 작가의 대본 수정 과정은 그야말로 두 사람 사이의 한판승부로 ‘밀고 당기기’의 진수를 보여준다. 검열관은 위급한 전시(戰時)에 이렇게 가벼운 작품을 무대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연을 포기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리한 요구들을 늘어놓는다. 극중 뜬금없는 대사를 넣거나 쓸데없는 인물을 등장시키라는 등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뿐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런 요구들에 황당해하면서도 결국 이를 모두 받아들여 작품을 고쳐나간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수정을 통해 작품이 점점 더 웃기고 재미있어진다는 설정이다. 웃음이란 억지로 금지할 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말이다. 이렇게 대본의 희극성을 없애려 했던 검열관의 요구는 역설적으로 작품의 희극성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버리고, 이 과정 속에서 검열관과 작가는 함께 작품을 완성해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 특히 냉랭한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디테일한 대사 하나하



©(주)연극열전

VS



포스터 출처 : 네이버영화

나에 신경 쓰면서 연출에까지 관여하는 검열관의 극적인 변화는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극중 작가는 검열관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틀 이용해서 웃기게 만드는 것이 희극작가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자 압력에 맞서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작가의 본심을 눈치채고 더 이상 수정요구만으로는 작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검열관은 마지막 요구를 제시한다. 희극적인 요소를 모두 삭제한 희극을 써오라는 것이다.

‘웃을 수 없는 희극’이란 모순적인 과제를 받고서 작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모든 작품보다 더 웃기는, 그야말로 ‘웃음 종결판’을 가지고 찾아온다. 때마침 자신에게 떨어진 징집 명령서를 받음으로써 검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어버리자 마지막으로 희극작가로서 본인의 역량을 다 쏟아낸 것이다.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이토록 유쾌한 작품을 써낼 수 있다는 사실에 검열관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한다. 어떤 두려움으로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웃음의 강력한 힘이 또렷하게 도드라지는 장면이다.

비장한 결말과 훈훈한 마무리

2004년 제작된 영화 <웃음의 대학>은 원작 자체가 연극대본이어서 그런지 매우 연극적인 미장센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거리나 극장 장면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영화의 대부분은 밀폐된 사무실에서 검열관과 작가 두 사람이 벌이는 설전으로 이루어져 있고, 카메라의 시선 역시 그들의 얼굴에서 거의 떠나지 않는다. 두 인물의 캐릭터나 갈등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 스크린으로 옮겨간 연극 무대를 그대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오히려 연극 <웃음의 대학>과 영화 <웃음의 대학> 사이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연극과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이라기보다 한국어로 변안된 연극 버전과 일본어 그대로 사용되는 영화 버전 각각이 보여주는 문화적 차이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이야기의 틀과 큰 흐름은 거의 같지만, 일본어 특유의 발음을 이용한 말장난이나 일본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유머 코드들이 연극무대에서는 모두 한국적으로 각색되거나 순화되어 등장한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객들에게 웃음의 코드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각색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화와 연극의 차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는 검열관과 작가가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을 들 수 있다. 입영통지서를 받고 “조국을 위해 죽겠다”며 비장하게 돌아서는 작가와 그 애 통하게 배웅하는 검열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간의 웃음과 사뭇 다른, 비장한 감동을 강조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덕분에 영화의 여운은 길게 이어지지만,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정이 우리 관객들에게는 다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연극 버전은 이런 비장한 결말 대신, 검열관과 작가가 마주앉아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본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훈훈한 장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매력과 앙상블


<웃음의 대학>은 검열관과 작가, 오로지 두 사람의 실랑이만으로 이끌어가는 극이기 때문에 배우들의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품이다. 영화 <웃음의 대학>에서는 일본의 국민배우 야쿠쇼 코지가 검열관 역을, 인기 그룹 SMAP 멤버 이나카기 고로



©(주)연극발전

가 작가 역을 맡아 각기 개성과 매력 넘치는 연기를 펼쳐보였다. 특히 야쿠쇼 코지가 근엄한 표정으로 뜬금없이 내뱉는 엉뚱한 대사와 어색함을 가장한 연기는 그 자체로 큰 웃음을 선사하며 명배우의 노련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카메라로 따로따로 인물의 얼굴을 화면에 담아내는 영화에서는 배우 각자의 매력이 더 도드라진데 반해, 오로지 두 인물의 캐릭터로 무대를 채우고 이끌어 가야 하는 연극의 경우는 무엇보다 두 배우의 호흡과 앙상블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연극 <웃음의 대학>은 지난 2008년 국내 초연 멤버로 무대에 섰던 송영창, 황

정민에 이어 양코르 공연마다 주진모, 안석환, 엄효섭, 정재성, 정용인, 조희봉, 정경호, (故)백원길, 최재섭, 김도현, 전병욱, 김지훈, 봉태규 등 탄탄한 연기와 배우들의 캐스팅과 조합으로 꾸준한 주목을 받아왔다. 대사 사이에 숨겨진 웃음의 코드를 전하는 노련한 연기도 연기지만, 상대의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에도 금세 반응이 달라지는 두 배우의 액션과 리액션을 쫓아가는 것 역시 연극 관극의 묘미다. 연극 <웃음의 대학>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후 높은 객석 점유율을 자랑하며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왔다. 우리나라에서 일

본연극이 이만큼 광범위한 인기를 얻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게다가 사실 <웃음의 대학>의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의 일본이다. 역사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우리에게 낯선 것들을 넘어 불편할 수 있기까지 한 배경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토록 꾸준한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어찌 보면 이 또한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웃음의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듯 <웃음의 대학>은 그 자체로 웃음의 막강한 위력을 증명하는 작품이다. 



오페라와 영화 ③

영화 <콰르텟>과 오페라 <리골레토>

QUARTET RIGOLETTO



평론가의 역할은 칭찬보다는 모자란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는 것에 있다. 따뜻한 비평가보다 차갑고 매몰찬 비평가가 명성을 얻는 이유는 이 때문일 것이다. 영화평론도 마찬가지여서 유명해져서 팬들의 무작정 찬사가 이어질수록 비평가들의 펜 끝은 점점 예리해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배우 더스틴 호프만은 예외다. 비평가들로부터 30년동안 즐기던 호평을 이끌어낸 배우로 유명하다. 작은 몸짓에 특별히 남자답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마이크 니콜라스의 <졸업>(1967)에서 실제보다 어린 나이의 주인공役に 발탁되면서 할리우드의 기린아로 떠올랐고 반(反)영웅주의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로, 한편으로는 상처받기 쉬운 여린 영혼의 남자 역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거론되곤 했다.

할리우드에서 특별히 다재다능한 재능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쌓아온 호프만이 2012년 무려 75세의 나이에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 런던의 웨스트엔

드에서 1999~2000년 공연된 동명의 연극에 기초한 <콰르텟>이 그것이다. 제목인 '콰르텟'은 사중주, 혹은 사중창을 의미하는 음악용어다. 가장 흔한 용법은 현악 사중주를 가리키는 'String Quartet'일 것이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1851) 3막에 나오는 테너, 소프라노, 바리톤, 콘트라alto의 사중창을 가리킨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의 콰르텟

이 사중창에서 네 가수는 각자의 성부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캐릭터를 노래한다. 테너는 만토바의 젊은 영주인 바람둥이 공작이다. 아직 덜 성숙한 남자를 나타내기엔 적합한 성부가 테너다. 다만 대개의 주역 테너가 순수한 심성의 캐릭터인 것에 반해 만토바의 공작은 호색한이다. 그러나 테너의 일반론을 감안해서 악인으로까지 묘사되지는 않았다. 소프라노는 만토바의 공작에게 육체를 유린당했음

에도 그가 첫 사랑의 대상인 바람에 공작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싶어하는 질다. 소프라노답게 청순가련형의 젊은 여인이다. 바리톤은 이 오페라의 타이틀롤인 만토바 궁전의 꼽추광대 리골레토다. 그러나 이 사중창에서는 더 이상 광대의 모습이 아니다. 딸 질다를 농락한 공작을 응징하려는 분노한 아버지일 뿐이다. 질다에게 공작의 엽색행각을 보여주고자 그 현장에 딸을 데려왔다. 보통은 알토로 불리는 콘트라alto는 지금 공작이 한창 작업을 걸고 있는 여인 마달레나 역을 부른다. 리골레토가 벌이려는 복수극에 연루되어 있으나 그걸 감추고 농염한 자태로 공작의 애간장을 태우는 팜 파탈의 모습이다. 노래는 여유 만만한 태도의 콘트라alto를 공들여 유혹하는 테너,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소프라노, 그것 보라며 복수의 당위성을 딸에게 설득하려는 바리톤의 모습을 묘사한다.



① 오페라 '리골레토'의 사중창 장면
 ② 중년 시절의 주세페 베르디
 ③ 영화 '파르렛' 포스터

〈리골레토〉의 원작은 유명한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의 〈왕은 즐긴다〉라는 연극이다. 그런데 16세기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를 바람둥이로 묘사한 바람에 1832년 파리에서 초연되자마자 공연 금지를 당했다. 베르디는 이탈리아 극장을 위해 이 원작을 선택했지만 국경을 넘었음에도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배경을 프랑스 궁전 대신 이탈리아 만토바의 공작 영주궁으로 변경하고 등장인물들의 이름도 바꾸었다. 위고는 베르디의 개작에 크게 분개했다. 그런데 일설에 따르면 친구들에게 억지로 끌려 공연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무대 쪽에 시선을 두지 않으며 애써 〈리골레토〉를 평가절하하려고 했던 위고는 이 사중창이 나오자 “내가 연극에서 도저히 구현할 수 없었던 것을 베르디가 해냈다. 네 사람이 각자 노래하는데 그들의 상황과 마음이 뚜렷하게 전달되고 있으니 말이야.”라고 감탄했다고 한다. 필자는 과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미심쩍다. 위고는 오페라 〈리골레토〉가 파리에서 공연되는 것을 막고자 일종의 공연금지가처분소송까지 벌였다가 패소했으니 말이다. 그리고도 공연에 갈 의사가 있었을까? 게다가 위고는 1851년부터 20년 가까이 나폴레옹 3세에 반대하여 국외에서 망명 시기를 보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리골레토〉를 보았다는 것일까? 아무튼 꼭 위고가 아니더라도 이 오페라를 본 사람은 누구나 실감할 것이다. 3막의 사중창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하며 음악적으로도 완벽하다는 사실을!



영화 : 음악가 양로원에서 살아가는 〈리골레토〉의 왕년의 스타들

그렇다면 이 사중창을 소재로 이용한 더스틴 호프만의 영화는 무슨 내용일까? 중반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영국 시골의 어느 한적한 양로원. 옛 사랑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테너 레지(툼 코트니), 호색한으로 보이지만 분위기 메이커인 바리톤 윌프(빌리 코놀리), 치매가 시작되어 정신은 오락가락하지만 소녀처럼 순수한 메조소프라노 씨씨(폴린 콜린스). 이들 세 사람은 한때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오페라 가수들이었지만 이제 모두 은퇴하여 '비침 하우스'라는 늙은 음악가들의 거처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의 슈퍼스타 소프라노인 진 호튼(매기 스미스)이 새 입주자로 나타난다. 대부분 진의 입주를 환영하지만 젊은 시절 진과 결혼했

다가 곧바로 헤어진 아픔을 간직한 레지는 쓸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재정난에 빠져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비침 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갈라 콘서트의 흥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만한 가수가 노환으로 쓰러지고 만다. 주최 측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한때 화려했던 네 가수가 모여 〈리골레토〉 사중창을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옛 동료들의 제의를 받은 진은 노래할 시기가 지났다고 단칼에 거절하고 마는데...

영화의 배경인 '비침 하우스'라는 양로원은 대부분 의 상속자였던 영국 유명 지휘자 토마스 비침의 이름을 따는 등 그럴 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이다. 영화가 촬영된 영국 버킹엄셔의 헤저 하우스는 18세기에 왕족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조지안 스타일의 아름다운 맨션일 뿐이다. 양로원의 실제 모델은 이탈리아 밀라노

MOVIE 'QUARTET'




- ④ 한때 부부였던 레지와 진
- 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밀라노의 음악가의 휴식의 집
- ⑥ 양로원의 늙은 음악가들
- ⑦ 갈라 콘서트의 네 사람
- ⑧ 귀네스 존스와 더스틴 호프만

에 있는 '음악가의 휴식의 집(Casa di Riposo per Musicisti)'이다. 베르디가 만년(1896년, 83세)에 사재를 털어 건립한 은퇴한 음악가들의 거처인데, 영화 이전의 연극 원작자인 로날드 하우드는 이 공간을 다룬 <토스카의 키스>(1984)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에서 이야기를 착상했다고 한다. '베르디의 집(Casa Verdi)'이라고도 불리는 이 양로원은 처음에는 베르디의 저작권 수입으로, 지금은 밀라노 시의 지원금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영화 속 네 주인공의 성격은 오페라에서의 캐릭터와 상당히 다르다. 레지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대단히 성실하고 소심한 남자다. 진과 헤어진 이유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을 고백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진다. 진도 청순가련형의 여인은 아니다. 과거의 영광 속에 사는 자존심 강한 여인이며 마음속으로는 지난 잘못을 레지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윌프는 남자다운 바리톤 출신답다. 한때 사랑했던 씨씨에게는 물론 양로원에서 일하는 젊은 여의사와 간호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끊임없이 던지곤 한다. 그러나 다 헛된 과시일 뿐이다. 수컷의 매력이 사라진 늙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씨씨의 경우는 넉넉한 소리의 저음가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순진한 여자다. 치매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언행은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이 영화는 '코미디-드라마'라는 장르에 속하므로 당연히 해피엔딩이다. 진 호튼은 심약해진 씨씨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안긴 일을 계기로 마음을 고쳐먹고 잘 나오지 않는 소리를 훈련시켜 갈라 무대에 오르기로 한다. 갈라는 대성황을 이루고 양로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데 성공한다. 다만 영화 마지막에 드디어 울려 퍼지는 <리콜레토> 사중

창은 한물간 늙은이들의 노래가 아니다. 명반 중의 명반으로 손꼽히는 리처드 보닝 지휘의 1971년 녹음(테카이 사용되었는데 루치아노 파바로티(테너), 조운 서덜랜드(소프라노), 셔릴 밀른즈(바리톤), 위게트 투랑고(콘트라alto)의 음성이다.

영국 웨일스 출신의 세계적 명가수 귀네스 존스가 젊은 시절 진 호튼의 라이벌이었던 은퇴 소프라노로 출연한 것을 비롯해서 늙은 음악가들이 단역으로 다수 출연한 점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귀네스 존스를 제외하면 대부분 더 이상 기억될 일이 없을 평범한 음악가들이지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그 경력과 한창 활동할 때의 사진이 곁들여지는 것은 특별한 감동을 선사한다. 그런데 그 감동의 본질이 '사라져 가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한 안타까움'처럼 보인다. 이 영화의 숨겨진 주제가 여기에 있으리라. 한때 인류 최고의 창조물로 불렸던 위대한 예술 오페라! 그러나 대중문화의 시대에 이제는 후원금에 의지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 오페라의 쇠락인 것이다. 그렇다고 오페라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아쉽지만 엄연한 현실일 뿐이다. 

글 유형 중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비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해와 음악심리치료 방법소개

우리의 모든 기술적인 노력은 한 인간과 그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해야한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Albert Einstein

What Is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부주의한 행동으로 매우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일종의 증후군(Syndrome)이라 하겠다. DSM-IV-TR(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에 의하면 세 가지 유형의 ADHD를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이는 부주의 우세형과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 그리고 부주의와 과잉행동-충동 둘 다의 진단기준을 만족하는 복합유형이 있다.

ADHD의 보다 명확한 진단기준은 아래의 나열된 부주의나 과잉행동-충동에 관해 여섯 가지나 또는 그 이상의 증상이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게 나타날 때이다.

또한 이상의 증상 중 일부는 7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며, 둘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한다(예; 집과 학교 또는 학원이나 작업장 등). 더불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임상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고, 광범위성 발달장애, 정신분열증, 또는 기타 정신적장애의 일부가 아니어야 ADHD진단을 내릴 수 있다. ADHD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주로 진단될 수 있는 장애들 중 하나로 발병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뇌손상 및 대뇌기능장애에서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생화학적 문제로 인한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가족기능이나 학교생활 및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부주의 우세형에 나타나는 현상 ◆

1. 종종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일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한다.
2. 과제 또는 놀이 활동에 주의를 유지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3. 누가 말할 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4. 종종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학교 과제나 일을 끝내지 못한다.(반항적 행동 또는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닌 경우)
5. 과제와 활동을 준비하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6.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학교 활동이나 과제와 같은)를 회피하거나 수행을 싫어한다.
7. 과제나 활동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다.(예, 장난감, 학교숙제, 연필, 책 또는 도구)
8. 종종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9. 종종 일상생활에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 과잉행동-충동성에 나타나는 현상 ◆

▶ 과잉행동

1. 앉아 있을 때 종종 손이나 발을 만지작거리거나 꼼지락댄다.
2. 교실 또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종종 자리를 뜬다.
3. 종종 마구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는 등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안전불감증 또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함)
4. 종종 조용히 놀거나 조용히 여가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5. 종종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행동한다.
6. 종종 끊임없이 말을 한다.

▶ 충동성

7. 종종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불쑥 답을 말한다.
8. 종종 순서를 기다리기가 어렵다.
9. 종종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참견을 한다.(예, 대화나 게임에 끼어들)

ADHD



음악을 통한 치료적 중재

ADHD대상아동을 위한 치료 방법으로는 기본적인 장애교육과 부모교육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와 협의하여 교실환경의 개선 또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음악이 사람에게 치료적 매체로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이미 지난 하늘다리 음악치료 시리즈 간행물을 통해 소개한 바 있다. 여느 장애나 심신의 다양한 문제에서처럼 음악은 ADHD아동-청소년들에게도 의미 있는 치료적 중재를 제공할 수 있다. 음악은 시간의 흐름 안에서 구조화되며 형성되기 때문에 음악

적 활동은 그 자체로서 지속적인 자발적 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은 점차 신체적인 균형과 더불어 정서적인 서열화 행동을 순차적으로 촉구하게 된다.

ADHD 아동-청소년들의 부주의에 따른 증상에 음악적 재미와 즐거움이 수반되는 다양한 즉흥연주 여기서 말하는 즉흥연주란¹⁾ 전문연주자들의 고난도 음악적 연주기술이나 표현기교를 의미하지 않고 대상아동의 현재 정서적 상황과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존의 행동에너지를 음악적 표현으로 돕는 과정의 치료적 연주행위를 말한다. 들은 자발적인 행동의 에너지를 촉진시켜 주며 점진적인 집중력과 주의력

및 지속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노래를 함께 부르는 합창도 음악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교감하며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 의사소통 및 심리적인 균형, 즉 관계의 주의력에 회복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음악 감상 또한 주의 집중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감상이후 자신이 들은 것을 순차적으로 기억하고 소환하는 가운데 시간의 흐름을 재인식하면서 생활주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물론 능동적인 참여 동기가 일어나도록 대상아동에 적합한 음악 매뉴얼 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동성과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자기 통제력과 균형 감각을 갖도록

¹⁾여기서 말하는 즉흥연주란, 전문연주자들의 고난도 음악적 연주기술이나 표현기교를 의미하지 않고 대상아동의 현재 정서적 상황과 인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존의 행동에너지를 음악적인 표현으로 돕는 과정의 치료적 연주행위를 말한다.




문화사업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적절한 충동행동을 허락된 환경 안으로 자유롭게 투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과잉-충동행동을 나타내는 아동-청소년들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본연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음악적 활동 안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지속성을 갖고 음악체험 안에서 반영과 재인이 일어나도록 일정 기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서도 생산의 즐거움과 상호관계의 재미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타악기 즉흥연주는 과잉에너지를 음악의 일정한 리듬과 박자 안에서 균형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초반부에 동질원리(ISO-Principle)에 기인하여 대상아동들의 행동과 근사한 동적활동이 연출된다면 보다 빠른 공감을 얻고 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 빠르게 관계에 적합한 균형적인 행동으로 변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연주행위라는 허락된 공간적 틀에서 대상아동들이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고 발산하며 정서적으로 내재된 감정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심리적 발산과 이를 통한 심리정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음악활동은 많은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며 기대하지 않았던 즐거움과 재미가 파생되고, 연주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균형을 갖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ADHD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성 향상에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사업
48 오늘도 왁자지껄 우리동네!



1



- 1 프로젝트 안단테 :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함께 진행된 영상제
- 2 대부도 예사모 : 퓨전 마당극을 준비하면서 인형탈을 함께 제작하는 대부도 예사모
- 3 이주민센터 : 스토리텔링을 통한 1년 동안의 연구를 토론회를 통해 공유

최근 문화예술 정책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것을 매개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삶을 나누는 '생활예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아래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안산지역의 주민들 주체로 지역문화공동체를 빛내는데 <왁자지껄 우리동네!> 사업을 시작했다. 이에 지난해에는 공모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문화 사업을 제안, 마을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위한 마을문화공동체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2014, 자발적 마을문화공동체의 씨앗을 심다

마을문화공동체사업의 자발적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단체는 원곡동 <(사)이주민센터>, 고잔2동 <엄마숲>, 월피동 <월피해피바이러스>, 사3동 <프로젝트 안단테>, 대부북동 <대부도 예·사·모>, 화정동 <너비울길 청년회> 등의 총 6단체이다. 각 단체는 왁자지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동네 곳곳을 누비며 동네 주민들을 만났고 예술을 통한 재미있는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벌이며 사람들을 모았다.

먼저 <(사)안산이주민센터>는 '다문화 공간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형성'이라는 사업을 진행하여 원곡동의 전통문화와 이주민 문헌조사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스토리텔링 발굴 면접 조사를 통해 원곡동이라는 지

역을 다시 재조명했다. 이번 조사는 원곡동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초석이 될 것이며 다문화에 대해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주의 역사를 돌아보며 이주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엄마숲>은 고잔동의 이야기 숲 도서관을 중심으로 '우리동네 DNA찾기-예술과 마을'이라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땅을 직접 밟아보고 풀과 나무들을 만지며 마을을 느끼는 생태교실, 고잔동의 설화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림책 만들기 등을 진행하면서 마을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독서기행, 어린이 연극교실, 마을축제 등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튼튼하게 세우며 많은 고잔동 주민들이 문화예술로 즐거움을 누리며 새로운 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3



4



6



7

- ④ 월피해피바이러스 : 성인연극워크숍 공연 후 공연에 참가한 모든 월피동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 ⑤ 컨설팅 : 김지연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안단테> 1차 컨설팅. 1년차 사업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다
- ⑥ 엄마숲 : 마을축제 때 마련된 부스에서 꿈꾸는 마을의 모습을 적는 어린이
- ⑦ 너비울길 청년회 : 천년마을 너비울 마을의 이미지를 담은 벽화
- ⑧ 너비울길 청년회 : 마을 길목의 공장들의 벽에도 화사한 색을 입힘



5



8

<월피해피 바이러스>는 월피동의 지역 초등학교에서 '양말인형'을 만드는 공예 수업을 진행하였고 제일 행복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연극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연극으로 배우고 자라는 시간을 만들었다. 또한 성인 연극 워크숍을 열어 노희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작품을 시민배우들과 함께 준비하여 연극으로 소통하고 연극 발표로 가족의 소중함을 지역주민들과 나누었다.

한양대학교가 있는 대학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로젝트 안단테>는 '우리동네'라는 소속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를 아카이브하는 한 해를 보냈다. 대학동에서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상가의 주인들, 그리고 대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담아 그 내용을 영상제를 통해 공유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공연이 곁들여진 영상제는 대학동의 활기 넘치는 이야기와 잘 어울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문화예술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인 대부동의 <대부도 예·사·모>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부도 지역의 유래와 설화를 찾고 그 스토리를 퓨전 마당극으로 만들어 한바탕 축제를 벌였다. 마술을 배우기도 하고 퓨전 마당극을 준비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종이 인형탈을 만들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즐거움은 마당극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지막으로 <너비울길 청년회>는 오래되고 칙칙했던 벽에 벽화를 그리며 마을길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정리하고 얼마 전부터 새로 마을에 들어온 공장주들과 함께 닫혔던 소통의 길을 열었다.



9 프로젝트 안단테 : 대학동에 함께 하고 있는 상가 상인들을 인터뷰하고 그 자료를 영상제작에 공유


2015, 마을문화공동체의 뿌리를 내려라

지난 연말에는 간담회 자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들은 1년 동안의 사업을 함께 돌아보며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성과와 아쉬움을 나누었다.

또 각 단체의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따뜻한 조언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준 김지연, 백기영, 임재춘 컨설턴트도 함께 자리하여 용기를 더해주고 2015년의 사업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아직까지 문화예술로 공동체를 엮어가는 과정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 참여자들은 더 튼튼하게 세워져갈 공동체를 소망하고 왁자지껄 웃음소리로 가득할 마을을 기대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밥을 먹고 문화예술로 소통하며 지역에 대해 고민했던 시간은 계속 이어져갈 마을 공동체사업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단기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안산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3년 연속 지원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빠르게 만들어내기 위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현상을 목도했던 우리는 앞으로는 관계와 신뢰 등,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행복한 문화예술 공동체 사업을 이어갈 것이다. 2015년도 사업은 3월 중 공고를 시작으로 활기차게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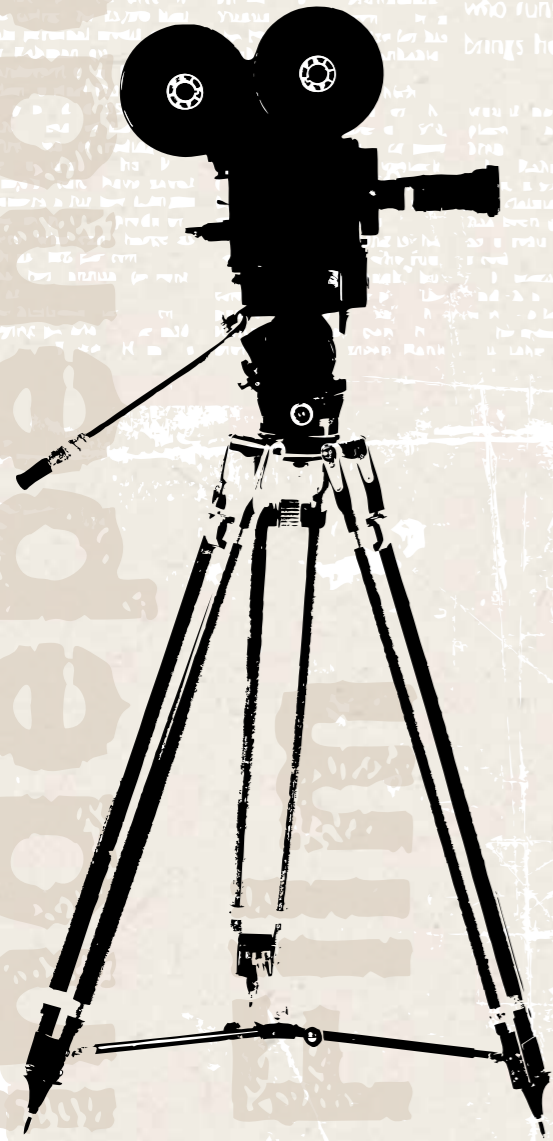
쉬어가는 곳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54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이

58 告解聖事[고해성사] 그리고 自畫像[자화상]



독립영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사이

흔히 우리는 기존 상업 자본에 의존치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된 영화를 '독립영화(獨立映畵)' 또는 '인디영화(independent film)'라고 총칭한다. 보통 영화에 투자되는 제작비가 적고 캐스팅에도 무명의 배우들이 대부분인 탓으로 흥행이라는 키워드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독립영화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 ① 영화 '한공주' 포스터
- ② 영화 '울지마 톤즈' 포스터
- ③ 영화 '지슬' 포스터



독립영화의 역사

미국 독립영화의 역사는 그 시점이 영화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보통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보다 확실한 입지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울러 할리우드(Hollywood)에 소속되지 않은 제작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영화를 총칭하는데, 보통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 고도의 기술이나 특수 효과에 의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적은 예산과 장비로도 충분히 그 감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상업영화의 지배적인 내러티브(Narrative)로부터의 독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보통 관객들로부터 모금된 공익적 기금을 영화의 투자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또는 정부와 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1908년대 초반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주목받던 영화가 대학교 동아리들 중심으로 부흥기를 맞이하고 다시 그들을 중심으로 독립영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독립영화의 역사적 발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날 소수 또는 마니아들 위주로 즐기던 독립영화는 그 소재를 사회적 비판은 물론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까지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더불어 상업영화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흥행을 기록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소개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충분히 반길만한 소식이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문화의 다양성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다.

독립영화, 인간을 실험하다

얼마 전 우연치 않은 기회로 독립영화 한편을 감상할 수 있었다. 케이블 채널의 인기 드라마 ‘미생’의 변요한이 주연을 맡은 ‘목격자의 밤(The Night of the Witness, 2012)’이라는 영화였다. 브라운관을 통해 개성 넘치는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낸 그였기에 내심 기대감은 더했고,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동안 연출자와 배우들이 스틸러라는 장르를 어떠한 요소들로 극에 다다르게 만들지도 궁금했다.

내용은 이렇다. 이 시대 청춘들의 초상을 대변하는 주인공 지훈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낸다. 그러던중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의 손님이었던 한 여인의 교통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후 사건을 목인해주는 대가로 큰돈을 주겠다는 회유와 반대의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압박을 받는다. 이후 주인공이 겪게 되는 도덕적 선택에 대한 내적갈등을 통해 기득권과 비기득권 간의 대립적 각을 표상하고 있다. 이처럼 독립영화는 우리 인



간을 자유로이 실험하고 그에 따라 비친 내면의 이야기를 일상의 흐름처럼 풀어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다시 스스로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영화를 관망하며 스스로를 실험의 대상에 세워둔다. 이 같은 표현방식 또한 독립영화의 묘미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술과 상업사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립영화는 지루하거나 어렵다는 수식어가 함께 하며 예술의 영역으로 치부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앞서 말한바와 같이 흥행의 주역이 되는 작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500만 관중의 눈물샘을 자극한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작품을 들 수 있겠다. 이 작품은 순수 제작비 1억 2,000만원으로 여기에 마케팅 및 배급비를 포함 총 제작비 3억 7,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익은 280억 원에 달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물론 독립영화에서 숫자의 개념은 크게 중요치는 않으

나, 그 수익을 바탕으로 독립영화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독립영화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각 작품마다 그 특성과 손익분기점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평균 5~6만 명, 더 나아가 10만 명은 돼야 다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문화산업의 밸런스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물론 독립영화를 논하면서 상업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겠으나 영화계의 생태계를 이해한다면 분명 필요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또 이를 통해 독립영화의 영역이 넓어짐으로써 상업영화와의 상생 발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독립영화의 성장과 남은 과제

독립영화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 하나는 다양한 장르를 실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상업영화와 차별화되는 분명한 장점이다. 하지만 이 또한 관객들의 인식의 성장이 밀



④ 영화 '목격자의 밤' 포스터
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포스터
⑥ 영화 '워낭소리' 포스터



거름이 되어야만 한다는 전제조건을 부정할 순 없는 부분이다. 다음은 독립영화라는 분야를 관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관의 증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전국에 4곳의 전용관이 있으나 이마저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개봉작을 올릴 수 있는 상영관은 불과 두 곳에 제한되어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지방의 경우 독립영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극장들이 개인의 자발적인 투자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재정적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에 관계자들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기업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독립영화라는 분야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아닌 문화와 예술의 종합적 융성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주게 된다.

그나마 충북, 청주, 울산, 부산 등의 지역에서 전용관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 대구에 '오오극장'이 개관 예정으로 결코 형광등의 깜빡임과 같이 암담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문화적 편식현상을 깨닫고 스스로가 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제도적 보완과 접근성의 강화, 그리고 독립영화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인식의 변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임은 분명하다.



告解聖事 [고해성사] 그리고 自畫像 [자화상]

시대를 거치며 끊임없이 피고 짐을 반복해온 미술계의 거장들. 그들은 동서고금(東西古金)을 막론하고 자신의 얼굴을 담은 자화상을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그것은 예술가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던지는 물음이자 외침이며, 독백이자 고해성사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들이 남긴 그들만의 언어에 잠시 귀기울여보고자 한다.

선비화가 윤두서(尹斗緒 1668~1715), 몽환

겸재 정선, 현재 심사정과 함께 조선 후기의 3재로 불리던 선비화가 윤두서의 자화상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떠오른 듯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상반신이 생략된 정면관(正面觀)의 두상 초상인 이 작품은 다소 살집 있는 얼굴에 홍조가 더해져 지극히 한국적인 모습이다. 여기에 위로 치켜진 눈매와 눈썹으로 다소 매섭게 보이지만 복스러운 코와 꼭 다문 두툼한 입술은 그의 고집스러움마저 엿 보이게 한다. 특히 한 올 한 올 섬세한 터치로 자화상의 전반적 분위기를 압도하는 탐스러운 수염의 묘사는 극사실적으로 바람이 불면 금세라도 흩날릴 듯 자연스럽다. 가로 20.5cm, 세로 38.5cm의 작은 종이 위에 그 한 사람의 무게감이 묻어난다.

조선후기의 문인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본 후 감상문을 통해 “6척도 되지 않는 몸으로 천하를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있다. 긴 수염 나부끼는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사람은 사냥꾼이나 검객이 아닐까 의심한다. 하지만 자신

을 낮추고 겸양하는 풍모는 돈독한 군자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일찍이 평하기를 풍류는 고개지 같고 뛰어난 예술은 조맹부 같으니 그 사람을 천 년 뒤에 알고 하면 또한 그림으로 그려진 모습에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 같은 그의 자화상엔 시대적 명암이 담겨 있다. 윤두서는 젊은 시절 한양에서 한문을 닦던 명문가의 종손으로서 그리고 재벌가의 자제로서 정치입문에 대한 뜻을 품고 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으나, 남인 계열인 해남 윤씨가 당쟁에 휘말리는 등 여러 이유로 그의 나이 46세 때(1713) 서울 생활을 버리고 해남 집으로 낙향을 결심한다. 그리고 2년 뒤 48세를 일기로 삶을 마치게 되는데 이러한 삶의 굴곡 때문인지 윤두서의 자화상엔 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화가로서의 자의식은 물론 단호함과 결단력 속 쓸쓸함이 뒤섞여있다.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제작 시기에 대해선 견해가 분분하다. 보통은 뛰어난 묘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가 낙향 후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점으로 그의 나이 40대 초반(1711년에서 1713년)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선 아들 윤덕희가 “공재공이 30세가 되자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다. 모친상 중에 형님마저 여의게 되니, 반백이 되었다.”라고 말한 증언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이 모두 검게 그려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자화상은 윤두서의 나이 서른 이전, 즉 1698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전 화가들에게선 볼 수 없었던 현실적 터치와 내면의 심리적 묘사가 보는 이들로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들며 카리스마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를 경험할 수 있었다면 감히 혁신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❶ 국보 240호, 수묵채색화, 종이, 20.5 x 38.5, 개인소장



있다는 것. 하지만 그의 얼굴엔 의연함으로 가득하다. 이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피어있는 푸른 초록의 나뭇잎을 통해 자신이 처한 아픔을 이겨내려는 희망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의대 지망생이던 프리다 칼로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를 앓았고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겪고 난 후 침대신세를 면하기 힘들던 중 어머니가 건네준 화구로 그림을 그리다 자연스럽게 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22살 연상의 멕시코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 혼인하였지만 계속되는 유산과 거듭되는 수술, 그리

고 남편의 무분별한 외도와 이혼 다시 재결합 등 굴곡심한 삶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그의 삶이 이해된다면 이 자화상의 기괴함이 충분히 수긍가능하다.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일기를 쓰듯 그렇게 그림으로 기록했는데, 그가 남긴 작품 143점 중 70점이 자화상이다. 이에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내가 가장 잘 아는 소재가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라며 자신의 자화상에 대한 후문을 남겼다.

이처럼 프리다 칼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심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킴과 동시에 정체성을 자신의 작품에 담아냈다. 그의 고국인 멕시코엔 ‘나팔리즘(nagualism)’ 사상이 존재한다. 이는 인간이 동물로 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즈텍 문명에선 신체의 오른발을 의미하는 동물이 사슴이었다는 것도 이 자화상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평소 동물을 사랑했던 프리다 칼로의 심성을 묘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 상처극복

다소 음산한 숲 속, 사슴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가진 기이한 형태의 생명체가 서있다. 이 생명체는 몸에 9개의 화살이 박힌 채 피를 흘리고 있어 이 숲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멀리 두고 보니 낫은 날씨에 거친 파도와 번개가 화폭 안의 긴 박감을 더하고 있다. 바로 멕시코를 대표하는 서양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자

화상으로 여느 화가들의 그것과 달리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무언의 아픔이 담긴 듯하다. 당시 프리다 칼로는 전차와 버스의 충돌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교통사고를 겪은 뒤 척추접합을 위한 대수술을 하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당시의 커다란 고통의 벽에 가로막힌 자신의 상황을 심리적 묘사로 표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몸에 박혀있는 화살들은 그가 겪고 있는 아픔을, 그가 서있는 화면 앞 나뭇가지는 곧 맞이하게 될 죽음을 나타내고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 자아탐구

스페인 남부 말라가 출신의 입체파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14세에 바르셀로나 미술학교에 입학해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1897년 마드리드에 있는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뒀다. 20세에 파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으며, 1901년 시작된 청색 시대와 1904년 장밋빛 시대를 거치며 1905년에 비로소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로 발돋움한다.

같은 시기 그는 당대 최고의 근대 회화 작가 브라크와 만나 입체주의 미술 양식을 창안했으며 1920년 신고전주의, 1925년 초현실주의를 접하게 된다. 1940년부터 남프랑스 해안가에서 아름다운 목가풍의 작품을 그리며 여생을 보냈다. 회화뿐 아니라 도기, 조각, 석판화 제작에도 열정을 쏟은 피카소는 총 5만여 점(유화 8000점)의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작으로는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꿈’ 등이 있다.

그러한 그는 지금 매우 고독하고 외롭다. 거기에 커다란 슬픔마저 그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다. 피카소의 청색 시대를 대표하는 이 작품엔 1900년 이듬해 이방인으로서 프랑스 화단에 정착하고자 견뎌내야만 했던 그의 처절한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특히나 특별했던 친구 카를로스의 자살 소식은 그의 내면적 갈등을 더욱 들끓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적 고뇌는 짙은 컬러의 코트 깃을 목까지 세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간다. 더욱이 깊게 파인 눈과 창백한 얼굴의 대조는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극까지 끌어 올린 듯한데, 20대의 풋풋함보단 성숙함이 배어난다.

“나는 결코 어린아이처럼 태어난 적이 없으며, 열두살 때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렸다”라며 당찬 모습을 보일만큼 어려서부터 미술에 천재성을 보였던 그는, 1900년 파리 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화려함 뒤에 감춰진 서민들의 빈곤함과 비참한 삶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고독감을 ‘청색’ 작품으로 표현한다. 1904년엔 몽마르트르 언덕에 아틀리에를 마련하고 사랑하는 여인까지 만나 청색에서 점차 장밋빛으로 바뀌어가는 화풍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온갖 번뇌와 실험적 광기로 충만했던 피카소의 청색 시대는 그의 생애가

장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 그려낸 코트 입은 자화상은 피카소 인생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힌다.



② 작은 사슴, 1946, 목재 섬유판 위에 유채, 22.4x30cm

③ 자화상, 1901, 캔버스에 유채, 81x60cm, 파리 피카소 미술관 소장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광기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겨울이었을까? 푸르스름한 털모자를 눌러쓴 채 힘없는 눈빛으로 한곳을 응시하고 있는 남성의 얼굴에는 피곤한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난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이다. 이 작품은 그의 사망 후 공개되어 최고의 걸작이라 칭송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왜 붕대를 감고 있는 지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미스터리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을 얻고 있는 의견은 그의 친구였던 폴 고갱(Paul Gauguin, 1848~1903)과의 예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논쟁이 잦아졌고, 말다툼 끝에 고흐가 스스로 귀를 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고흐는 파리로 떠나고, 고흐의 발작과 환각증상은 더욱 깊어만 갔다는 설이 그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이 작품에는 유독 광기가 서려 보인다. 다음의 일화 또한 폴 고갱과의 다툼에 관련된 이야기로 두 사람의 다툼 중 펜싱에 능했던 고흐가 우연히 휘두른 칼날에 의해 귀가 잘렸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확한 증거는 두 사연 모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와 같이 널리 알려진 자극적 일화들에 의해 그의 그림을 온전히 보고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길 감히 바란다.

이후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작증세는 그 빈도가 더욱 잦아졌고, 그로 인한 병원출입 횟수는 늘어만 갔다. 하지만 그는 발작증세가 잠잠할 때면 그 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그림들을 그려냈다. 그리고 결국 발작과 그림 그리기를 반복하다 지쳐 파리 근교 오베르에 있는 의사에게 찾아가게 된다. 1890년 5월, 한때 건강회복으로 발작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듯하였으나 다시 쇠약해져 끝내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④ 파이프를 물고 귀에 붕대를 한 자화상, 1889, 캔버스에 유채, 60x49cm, 코롤드 인스티튜트 미술관

사실 고흐와 고갱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써 두 천재화가의 만남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하다. 1888년 고흐는 프랑스 아를에서 화가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하고, 수많은 동료들 중 고갱만이 유일하게 그의 제안에 응하게 된다. 이후 둘은 함께 동고동락하며 작품에 열중한다. 이 시기 고흐는 ‘해바라기’, ‘씨 뿌리는 사람’, ‘별이 빛나는 밤’, ‘아를의 포럼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테라스’ 등 우리에게 익숙한 명작들을 완성하게 된다. 이처럼 빈센트 반 고흐는 비극적인 짧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가 중 한사람으로 추앙 받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20세기의 미술운동들, 특히 야수주의와 독일 표현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토대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산국제거리극축제
 64 5월, 거리예술로 함께 만드는 도시의 흐름

단원미술관 기획전
 68 신성희, 고향에 오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미리보기



5월, 거리예술로 함께 만드는 도시의 흐름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 'City in Action'

아스라이 내려앉은 봄 햇살과 미미한 열기를 지닌 여름 바람을 머금은 5월, 거리는 당신의 꿈결이 된다. 평소 삭막하던 도심 속 광장은 때론 흥이 넘치며, 마음을 어루만지고, 몰입의 무아지경을 느끼는 세계가 된다. 그렇게 각각의 물방울로 모인 우리의 감정과 움직임은 하나의 지류가 되어 도시의 흐름을 완성한다. 이걸 어렵거나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저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함께 즐기지만 하면 당신에게 일어날 예사로운 일이다. 우리를 거리예술로 하나 되게 할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 된다. 거리에서, '액션!'

액션! (City in Action)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이하 축제)가 5월1일(금)부터 3일(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국내 48작, 해외 13작의 총 61작 내외의 거리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관객과 보다 농밀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몸짓과,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되는 '큐' 사인을 의미하는 '액션!(City in Action)'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축제는 마음 한 편에 묻혀 있는 아픈 기억들을 외면하는 대신,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을 배웅하며 치유의 축제를 치르고자 한다. 그 첫 발걸음은 창작그룹 노니 <바람노리, 안산>과 프랑스 에어로스컬처 <비상>에서 시작된다. 현대적으로 해석된 길놀이와 하늘을 수놓는 흰색 벌룬 인형들은 지난

해 안타깝게 하늘로 떠나보낸 이들을 추모하며 안산 시민의 마음을 보듬어 줄 예정이다.

공식참가작

축제 공식참가작으로는 개막작 <바람노리, 안산>과 <비상>을 포함하여 거리예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국내외 총 12작의 거리예술작품이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실험적인 시도들이 돋보이는 14작 내외의 거리예술작품들이 자유참가작으로 선보인다. 또한 올해 축제는 '광대의 도시'를 신설하여 익살스러운 몸짓을 통해 즐거움을 선사하고, 풍자와 해학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공유하는 행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역과 함께, Action

축제는 불특정 다수이자, 동시에

특정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안산이란 지역의 이야기, 하지만 어디서나 발견 가능한 사람들 삶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주치고 교류하며, 경계를 잊고 화합하여 흘러간다. 간격을 채우는 희로애락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다. 축제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많은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하길 바란다. 함께 표현하고 쏟아내며 만들어 가는 도시의 활력을 기대하며, 안산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을 통해 보다 삶에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한다. 이를 위해 축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는 안산을 기반으로 한 작품 개발 및 지역의 예술창작 기반 형성을 위해 다양한 거리예술작품의 제작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5작품이 선정되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공식참가작

작품명	단체명	주요내용
거리의 시인	헤이스 반 본 Gijs Van Bon(네덜란드)	거리에서 시를 적어 내려가는 로봇을 통해 순간을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덧없음을 표현한 이동형 공연
남겨진 사람들	오 울티모 모멘토 O Ultimo Momento(포르투갈)	기억을 잃고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갇혀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차이니스 폴 무대를 기반으로 한 아크로바틱 공연
메가폰 프로젝트	매들린앤팀 Madeleine and Tim(호주)	다양한 소리를 담은 거대한 메가폰 25개가 축제 공간에 배치되어 시민들을 만나는 지역 특화형 사운드 설치공연
비상	에어로스컬처 Aerosculpture(프랑스)	대형 벌룬 인형들과 라이브음악이 어우러진 웅장하고 몽환적인 도시의 오페라, 대형 거리극
철의 대성당	극단 오스모시스 Osmosis Cie(프랑스)	산업현장에서 오가는 노동자들의 생생한 언어를 몸짓과 미디어 아트, 산업 기계 등으로 표현한 복합 장르 공연
편린 인 안산	트리스탄 미첨 Tristan Meecham(호주)	42.195km를 달리는 아티스트를 관객이 플래시몹, 공연 등의 형태로 응원. 마라톤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츠와 예술이 결합된 라이브 퍼포먼스
파이로 아트웍	예술불꽃 화(花,火)랑	고시가인 공무도하가의 만남과 헤어짐, 사랑의 영원성을 불꽃의 이미지로 승화한 불꽃공연
담벼락을 짚고 쓰러지다!	비주얼씨어터 꽃	세월에 휘청거리는 취객과 대답 없는 담벼락 사이의 실랑이를 표현한 페인팅 퍼포먼스
당나귀 그림자 재판	예술창작공간 [코마앤드]	코믹한 움직임과 음악을 통해 예리하면서도 통쾌함을 선사하는 2인극
바람노리, 안산	창작그룹 노니	숨바꼭질을 하듯 펼쳐지는 이미지의 풍경을 따라 함께 걸으며 즐기는 무연 가면무
조화로운 삶	엠비규어댄스컴퍼니	바쁜 일상 속 등장한 춤과 음악으로 모두가 조화로운 삶의 공간에서 한숨 쉬어간다는 내용의 거리무용
템페스트	극단 하땅세	세익스피어의 마지막 작품 '템페스트'를 통해 전달하는, 분노와 복수를 거치고 난 후의 용서라는 보편적이고 따뜻한 감동. 관객참여 이동형 공연

크리에이터

작품명	단체명	주요내용
W.C (웰컴)	씨드댄스프로젝트그룹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행동, 심리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해 현대인의 기초적인 욕구와 정서적 욕망을 몸짓으로 표현한 거리 무용
도깨비 야시장	정의로운천하극단 걸판	야시장이 주는 추억과 공동체적인 향수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동체극
스트리트 픽스토그램	웨이인크랙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안산의 모습을 통해 지역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커뮤니티 아트
안산순례길	윤한술&고주영	순례라는 콘셉트를 통해 안산이 지닌 도시의 특징과 시민의 일상을 표현한 설치미술 프로젝트
올모스트, 단원	극단 문	안산의 고등학교들이 직접 배우가 되어 같은 지역을 살고 있는 또래의 이야기와 안산이라는 도시의 의미를 진솔하게 풀어낸 공동체 연극 프로젝트



올해는 축제의 공간 확장을 위해 지역연계프로젝트인 <원곡동 프로젝트>가 신설된다. 4월 30일 다문화의 상징적 공간인 안산의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중심으로 플래시몹 공연 및 축제 참가작 일부가 공연되어 사전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Action

거리예술에 몸을 맡긴 우리, 한데 어우러진 우리의 환희가 도시의 흐름을 만든다. 2015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우리'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국적,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누구나 창작자가 되어 축제의 조각들을 채워나간다. 우리는 축제의 주인이 되어 또 다른 우리를 초대한다.

올해 축제는 '우리'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대규모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축제 제작 단계부터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커뮤니티 댄스 <위대한 도시 : 그랜드 콘티넨탈(Le Grand Continental®)>은 춤을 사랑하고 동경하는 시민댄서 160여 명이 참여해 10주간의 워크숍을 거쳐 완성하는 작품이다. 단순한 박스를 재료로 하여 안산 고유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설치미술 작품 <시민의 건축>, 일상 속 버려지는 물건들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아트 업> 프

로그램이 함께 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공식초청작 중 하나인 <편린 인 안산(Fun Run in Ansan)>에도 다양한 안산 지역 아마추어동호회들이 참여하며, 일반 시민들도 플래시몹을 통해 작품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그 누구나 다양한 역할로 참여하여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를 만들 예정이다.

2015 단원미술관 기획전 '신성희, 고향에 오다'

2015.4.30 ~ 5.30 단원미술관 전관

누아주(nouage, 엮음)라는 독자적인 회화양식을 탄생시키며 프랑스 및 유럽을 비롯하여 세계 미술계의 찬사를 받아온 신성희 작가의 회고전이 안산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1

신성희 작가는 1948년 안산에서 태어나 (현)안산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홍익대학교 회화과를 나와 1980년 이후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조형세계를 추구해 온 집념의 작가다.

그는 기존 회화의 관념에서 벗어나 회화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구축해 왔다. 1970년대 중후반에는 '마대위에 마대'라는 극사실주의 표현 방식을 통해 평면회화에 대한 자신의 양식을 모색

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화려한 색채로 그려진 판지를 손으로 찢어 붙임으로써 정형화된 회화양식을 탈피하여 재구성한 콜라주 작업으로 그의 조형적 실험을 확장하였다. 이후 그의 회화는 좀 더 과감한 변형과 해체의 과정을 거치며 1990년대 초 중반에는 채색한 캔버스를 얇게 잘라 다시 캔버스에 박아서 이어 붙이는 '연속성의 마무리 Solution de continuité' 연작을 남겼으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의 예술적 창조작업의 결실인 '누아주(nouage)'를 탄생시키게 된다.

- 1 평면의 진동 2008_291x192cm
- 2 회화 1981_130x82_toile de jute-huile
- 3 결합 1997_117x80cm-coton-lin-acrylique



2



3

'누아주(nouage)'는 점, 선, 얼룩 등 다양한 컬러로 채색된 캔버스를 얇은 두께의 길이로 잘라 이를 다시 손으로 엮음으로써 평면을 넘어 3차원 공간에 또 다른 회화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는 "해체와 건설, 혼돈과 질서, 압축과 긴장, 당김과 뭉쳐짐의 실험들은 평면에서 입체의 현실로 변화되어 우리들은 바람이 오가는 공간의 문을 열게 하였다."(2005, 캔버스의 증언)라는 그의 말처럼 끊임 없는 해체와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영원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예술적 생명의 순환고리를 창조해낸 것이다.

이번 단원미술관 전시에서는 그의 고향 안산에서 열리는 회고전인 만큼 신성희 작가의 40년 화업을 시대별로 조명해볼 수 있는 대표 작품들을 펼쳐 보이고,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초기 작품들과 오브제, 스케치, 드로잉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그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1관에서는 신성희 작가의 작업시기를 크게

4단계(마대작업, 콜라주, 박음질작업, 누아주)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대표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표현양식의 변화에 따른 그의 회화적 관념체계를 종합적으로 반추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며, 2관에서는 오브제와 소품, 드로잉 작업과 스케치 등을 작품과 연동하여 일관성 있게 병치시킴으로써 그의 예술적 결과물이 탄생하게 된 과정과 작가적 고민들의 흔적들을 보여주게 된다. 더불어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 및 영상, 프랑스 시절 동시대 예술인들과의 교우관계를 엿볼 수 있는 서신과 당시 활동 자료들을 아카이빙하여 전시함으로써 그의 삶과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신성희(申成熙, 1948~2009)

- 1948 경기도 안산 출생
안산초등학교 졸업
- 1966 서울예고 졸업
- 1971 홍익대학교 졸업
- 1980-2009 프랑스에서 작품활동




④ 새장(Cage) 2003_47x47x134cm_cage acrylic on leather
 ⑤ 회화 1996_200x100cm_Chassis coupe-nouage-toile-coton



나의 작업들은 찢어지기 위하여 그려진다. 그리고 찢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예술에 대한 질문이며, 그것이 접히고 묶여지는 것은 곧 나의 답변이다. 공간은 나로 하여금 평면을 포기하게 한다. 포기해야 새로워진다는 것을 믿게 한다. 포기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나의 그림이다. 찢겨진 그림의 조각들은 나의 인식과 표현의 대상들이 죽었다는 것의 증거물이다.

나의 두 손은 이 증거물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바람이 오가는 빈 공간의 몸체에 예측할 수 없는 신경조직을 새롭게 건설한다.

씨줄과 날줄처럼 그림의 조각들이 자유롭게 만나는 곳마다 매듭의 세포들을 생산해 낸다. 묶여진다는 것은 결합이다. 나와 너, 물질과 정신, 긍정과 부정, 변종의 대립을 통합하는 시각적 언어이다. 색의 점, 선, 면 입체가 공간의 부피 안에서 종합된 사로고 증명하는 작업. 평면은 평면답고, 입체는 입체답고, 공간은 공간다운 화면에서 일하기 위하여,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

2001 작가의 글에서 

단원미술관 기획전

전시기간
 2015. 4. 30 (목) ~ 5. 30 (토)

장소
 단원미술관 전관

전시작품
 <회화공간>, <평면의 진동>, <공간별곡> 외 다수

주최
 안산문화재단

문의
 단원미술관 031-481-0504

안산문화재단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앞

4 2 5 - 9 0 6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 3. 1 ~ 2015. 4. 10
 안산시우체국
 제206호

하늘다리
 2015 | 03/04 | vol. 47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라라라우

물결치는 곳

물결치는 곳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현재

총 **341,596,940**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웨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안산대학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킵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이시영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중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앤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중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교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중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농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쟈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중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최민석, 거품전력(주) 홍희성, 이니티움

햇빛회원

안산도시개발(주)

기쁨회원

라이프스포츠

독자 설문

1. <하늘다리> 03+04월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
.....
.....

2. <하늘다리> 2015년 05+06월호에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은?

.....
.....
.....

3. 안산문화재단에서 보고싶은 공연은?

.....
.....
.....

4. 그밖에 <하늘다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
.....
.....

5. <하늘다리>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연락처 :

이메일 :

- ※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하늘다리> 문의 031-481-4047 (안산문화재단 하늘다리 담당자)
- ※ www.ansanart.com

절취선

